

화단에 꽃 핀 老교수의 제자사랑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 노(老) 교수의 제자 사랑이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 2010년 봄 퇴직한 월아(月娥) 양계남(여·68·한국화가) 조선대 명예교수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만든 상의 수상자들이 국내·외 화단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상은 조선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작가들의 모임인 선목회(회장 김연수)의 ‘올해의 미술상’과 조선대 월아장학회의 ‘월아미술상’.

올해의 미술상과 월아미술상은 양 교수에게는 보람을, 제자와 후배 작가들에게는 작가로서 작품활동에 정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월아미술상은 양 교수가 지난 2004년 조선대에 2100만원을

양계남 전 조선대 교수 기금 기탁

‘월아 미술상’ 선목회 ‘올해 미술상’ 운영

최미연·주대희·이득선 등 활동 활발

올 수상자 전시 2~6일 조선대미술관

기탁하면서 만들어졌다. 이 돈은 지난 1967년 졸업 직후부터 40년 넘는 세월을 조선대에서 한국화를 가르쳤던 그가 정든 대학과 후배, 제자들을 위해 수년간 틈틈이 부어온 적금이었다.

학교 측은 이를 계기로 지난 2004년 12월부터 한국화 전공 재학생 공모를 통해 매년 1~2명을 선정,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상과 장학금의 이름은 양 교수의 호에서 따왔다.

양 교수는 퇴직을 앞둔 지난 2009년 겨울에도 월아장학회에 1000만원을 추가로 기탁, 운영자금을 보탬다. 그는 당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순수미술이 날로 위축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힘들게 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창작열을 불태웠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월아미술상은 올해 10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조선대 이태희·최현정씨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가들의 전시는 2~6일 조선대미술관에서 열린다.

지난 2004년 11월 제정된 선목회 ‘올해의 미술상’도 지난



지난 8월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에서 열린 ‘제26회 선목회 정기전’과 ‘선목회 올해의 미술상 수상작가전’에 참여한 양계남(뒷줄 왼쪽에서 8번째) 교수와 선목회 회원들의 모습. <선목회 제공>

2005년 제1회 수상자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8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선목회 고문으로 있는 양 교수가 힘든 여건에서도 창작열을 불태우고 있는 전업작가 제자들을 위해 만든 상으로, 양 교수가 창작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열심히 활동하는 제자들의 개인전을 열어주고 싶었다”라는 양 교수의 바람처럼 수상 작가들은 단순히 상금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전시회를 통해 작업 결과물들을 선보인다.

수상 작가들의 활동도 두드러진다. 이득선, 배현철, 정선, 김희준, 최미연, 이영실, 주대희, 조선아씨 등은 국내·외 화단을 오가며 자신들의 독특한 화풍을 선보이고 있다.

진경산수를 모티브로 도시풍경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는 최미연씨는 지난 2012년 광주비엔날레에 최연소 작가로 참여했으며, 인간과 자연에 대한 깊은 사유를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이득선씨는 남농미술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50여회의 기획전과 단체전을 가졌다.

현대인의 모습을 한지에 먹으로 표현하고 있는 주대희씨는 광주시미술대전 최우수상을, 조선아씨는 전남미술대전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양 교수는 “상을 만든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됐더니 뿌듯하고 행복하다”며 “수상 작가들과 후배들이 쉬지 않고 열심히 해주니깐 그저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상이라는 조그마한 관심이 제자들에게 힘이 되고, 하나의 자국이 꽤 좋은 작품을 만드는 계기로 이어졌으면 한다”며 “상을 준다는 것보다 상을 통해 후배들의 고민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의재 허백련에게 문인화를 사사했으며 베를린, 파리,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지에서 20여 차례 개인전을 가졌다. 조선대 미술관장, 미국 미주리주립대 객원교수, 뉴욕 플리테르닉대학 객원교수, 광주시전·전남도전·무등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경인기자 kki@

목향 그윽한 무등산자락

한·중 수묵 교류전 31일까지 광주 의재미술관

광주 의재미술관은 오는 31일까지 제10회 한·중 수묵 교류전 ‘수묵의 원류를 찾아서’를 연다.

한·중 수묵 교류전은 동양적 세계관을 오랫동안 공유해온 한국과 중국의 수묵 흐름을 비교해 보기 위해 중국 심천 시립 관산월미술관과 광주 의재미술관이 해마다 주최하는 전시로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 작가 19명, 중국 작가 20명 등 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수묵 작가 39명의 작품 4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한국 참여 작가는 강호생, 김대원, 김문철, 김상연, 김천일, 문봉선, 박소영, 박홍수, 이구용, 이선우, 이장원, 이정신, 이평규, 이

홍규, 장상의, 장찬홍, 조광익, 최지영, 허 진 작가 등이다. 중국에서는 진 런꾸이, 황 웨이타옌, 천 쥘위, 선 후, 판 지옌, 천 샹보, 원 쥘페이, 페이, 뤼 이펑, 화 지옌궈, 리 티예진, 쉬 지옌웨이, 쉬 둔핑, 야오 쟈시, 런 샤오쥔, 주 광룽, 루 샤오허, 쉬에 양, 왕 지옌, 왕치 작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의재미술관 관계자는 “나라와 지역이라는 경계를 넘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예술의 진정성을 공유하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 심천 시립 관산월미술관은 중국 영남화파의 대가인 관산월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중국의 대표적인 현대미술관이다. 문의 062-222-304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천 진위 작 ‘천자산 사생’



광주일보 신춘문에 공모

단편소설·시·동화…12월 15일 접수 마감

광주일보사가 한국문단의 새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광주일보 신춘문에’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에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돼왔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치열한 문학정신이 살아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부문 및 상금
 -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 ▶ 시 : 3~5편(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접수 마감 : 2013년 12월 15일(15일자 소인 유효)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501-71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문의 062-220-0624)

- 기타
 -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원고 접수 시 전화번호·주소·e메일주소를 함께 보내주시시오.
 - 응모 작품은 발표된 적이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품의 표절일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 당선작은 2014년 1월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합니다.

光州日報社

‘색채 추상’ 대가의 예술혼

고 최옥경전 3일까지 신세계갤러리



‘무제’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3일까지 고(故) 최옥경(1940~1985)전이 열린다. 최옥경은 추상표현주의를 비롯한 당대 유행한 사조와 경향들을 적극 수용하고, 끊임없는 실험과 시도를 통해 이를 한국적 미감으로 체화한 한국적 색채 추상 미술의 대표작가 중 한 명이다. 이번 전시에는 그동안 회고전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미공개 작품들을 포함한 회화, 드로잉 등 23점이 전시되고 있다.

1963년 미국 유학시기 구체적인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자유분방한 붓질과 원색의 색채가 강한 추상표현주의 작품, 미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던 1970년대 색채를 새, 꽃, 물고기 등 자연이라는 주제와 결합해 표현한 작품, 1978년 귀국 이후 우리나라 자연을 밝은 파스텔 톤으로 담은 작품에 이르기까지 60~80년대 대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360-127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

금매로 팔아야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일에 ! 높은 가격에 ! 바로 처분해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주월동 대지 2,000㎡, 건물 2,020㎡. (수익률 10%) 대출 16억5천포함, 매매가 38억.

◦ 쌍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신창동 대지 488㎡, 건물 966㎡ 매매가 15억 (공실없음)

◦ 풍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출28억 포함, 매매가 42억.

토지 매매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광산구 수완동 수완지동차매대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터, 타이어 적합, 매매가15억.

◦ 화순군 동면 오동리 전, 임야, 계획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나주시 부곡동 2차선 도로접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전 2,350㎡ 건축가능 투자적합 매매가 1억9천만원 (금매)

비싼시더라도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 만큼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 062-513-4985, 010-2338-3113

원룸전문(전대1분)

★전대 상대 농대1분★

◦ 룸11개(1층 상가) ◦ 월수익 420만 준공완료

◦ 매가 5억9천(보증금 2000, 용 1억2천)

★전대 정문 1분★

◦ 룸18개(만실) ◦ 월수익 600만

◦ 매가 6억9천(보증금 2억, 용 1억2천)

★전대상대2분 옹봉지구★

◦ 룸19개(1층 상가, 주택1개)

◦ 월수익 850만 ◦ 매가 12억(용 4억)

★화정동 APT 입구 코너★

◦ 1층 상가, 2층상가, 3층룸9개, 4층룸9개

◦ 월수익 1300만 보3억 ◦ 매가 19억

★남구 백운동 ★

◦ 룸15개(주택1개) ◦ 매가 8억8천

★전대정문 1분 ★

◦ 룸15개 (만실) ◦ 매가 6억3천

(보증금 4천 월510, 용 1억2천)

신한공인중개사

H.P. 010-6670-9800

선암동 전원주택용지보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암지구

영광 →

어등산 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2475-0933

010-5166-0013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특란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해수욕장과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절경의 고급별장

토지 4,900㎡

건물 245㎡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100%) 건물에 수입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집.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싼 도심속 전원 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숲속의 전원 주택부지 및 사찰용지에도 적합.

전 3,700㎡

매가 ㎡당 105,00원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대창공인)

011-642-7777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신축원룸

(전대·상대·농대 쪽문임)

원투룸 14개를 ▶ 11개로 최고위치!

1층상가 (2~4층 원투쓰리룸)

등기완료 (전면대리석, 벽돌집)

보증금 3천 월435 (연 5천2백)

매가 5억9천 (용1억3)

수완지구 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3층매매(85평) 3억2천

1층임대 (18평) 보3천 월130만

3층임대 (86평) 보3천 월190만

☎(062)527-7600